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 개관

유리병·플라스틱·종이 등 선별
1일 30t 재활용 쓰레기 처리
2주간 시운전...내년 본격 가동



지난 16일 정읍시 영파동 일원에서 열린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 개관식에서 이학수 정읍시장 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이 공동으로 추진한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가 16일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정읍시 영파동 일원에 조성된 회수센터는 재활용이 가능한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종이 등의 자원을 선별하는 시설이다.

앞서 3개 시군은 각각 운영 중인 재활용 선별시설이 노후돼 내구연한이 도래함으로써 선별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께 손을 잡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공모사업'에 공동응모해 사업대상으로 3개 시군이 선정되면서 회수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회수센터는 국비 19억원, 도비 6억원, 시군비 82억원 등 총 107억원을 투입, 부지 2만7827㎡에 건축면적 2877㎡ 규모로 조성됐다.

정읍시가 50%의 사업비를 부담했고 고창군과 부안군은 각각 25%씩의 사업비를 냈다.

재활용 선별동과 압축 파쇄동, 선별품 저장동 3개 동으로 이뤄진 회수센터는 자력선별기와 광학선별기 등 자동화 선별시스템을 갖춰 1일 30t의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

시는 회수센터 준공 후 시설정비와 함께 인력을

채용하고 고창군·부안군과 협의해 운영비 등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오는 19~30일까지 종합시운전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는 정상가동할 계획이다.

이번에 문을 연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종합시운전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정상 가동할 계획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3개 시군에서 나오는 재활용 가능 자원을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시민들

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생태도시에 걸맞은 재활용 대책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3개 시·군의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사업'은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2021년 정부혁신 100대 과제'에서도 협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3000→5000만원

시, 8개 금융기관 협약
이자보전을 2%→3% 확대

남원시가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기관 간 상호협력력을 내용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 및 8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큰 폭으로 오른 고금리에 대출 규제의 강화로 소상공인들의 신규 대출이 어려워졌고 이자 부담도 커져 자금지원에 대한 보증 한도와 이자 지원율 상향을 원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특례보증 대출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이차보전을 기존 2%에서 3%로 상향 확대지원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어 시는 청년 창업 소상공인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 및 재창업 전·후 안정적인 경영 성장을 위해 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함께 운영하는 경영 전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에 있다.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남원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일반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 소상공인이다.

협약을 통해 연중 상시 신청을 접수하는 금융기관과 전북신용보증재단 남원지점을 경유해 남원시 일자리경제과에 신청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물가상승, 고금리 이자, 창업정보 부족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시의 지원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군, 지방물가 안정관리 '전국 최우수'

공공요금 동결 높은 평가
시상금 특별교부세 1억원

고창군이 행정안전부의 '2022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 행정안전부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2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 실적 평가 최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시상으로 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정부는 물가안정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 실적, 특수 시책 추진사항 등을 반영해 평가했다.

고창군은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상수도요금, 쓰레기봉투 등의 지방공공요금의 동결을 지속

적으로 유지해왔다.

특히 상수도요금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0% 감면을 추진해 평가기간 기준 2억1000만원 상당의 요금을 지원했다.

또 물가동향 현장 모니터링,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통시장상인회, 고창경제살리기 여성회와의 민간협력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외식비 절감을 위해서도 착한가격업소 26개소를 지정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하고자 상수도요금, 소모품 지원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물가 안정관리 최우수기관 선정은 8년만에 이뤄낸 성과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전국 최우수수에 걸맞게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물가정책을 추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관광 고창' 말레이시아 현지 뜨거워 관심

쿠알라룸푸르 '전북관광대전'
한인체육회 내년 5월 방문 의사

'2023 세계유산도시 방문의 해'를 적극 홍보하고 있는 고창군이 본격적인 해외 관광객 유치활동에 나섰다.

고창군은 전북도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한 '2022 전북관광대전'에 참가, 현지 여행사, 학교,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홍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고창군홍보단과 전북도 및 14개 시·군 담당자들은 한국관광공사 쿠알라룸푸르지사(지사장 양경수)를 방문해 말레이시아 방한 관광시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고창군의 관광자원을 집중·홍보했다.

또 현지 여행사와 일대일 상담, 관광설명회, 말레이시아 우수 지원단(서포터즈) 지정서 수여, 여행사 방문 및 상품 홍보, 유관기관 관계자와 업무 논의의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한인체육회 사무총장이 내년 5월 '아-태 마스터즈대회' 참석차 방한할 때에 고창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견과 함께 고창군의 홍보영상을 요청해 이를 전달하기도 했다.



'2023 고창 방문의 해'를 홍보하고 있는 고창군홍보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2022 전북관광대전'에 참가해 현지인과 교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은 청정자연과 함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전례의 지질환경까지 갖춰 수박과 복분자, 멜론, 풍천장어, 바지락 등 먹거리까지 풍성한 미식의 도시다.

또 2곳의 조선시대 읍성을 비롯해 2곳의 해수욕

장, 3곳의 골프장, 게르마늄 온천,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MTB파크, 경관농업 1번지 학원농원 청보리밭, 대한민국 6차 산업화 성지인 상하농원 등 다양한 콘셉트의 여행지가 곳곳에 펼쳐진 곳이기도 하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 녹두한우영농조합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

2년 연속 선정

정읍 녹두한우영농조합법인(대표 오병오)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제2회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 선발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농식품부에서는 국산콩 재배 농가의 영농 의욕을 높이고 우수 생산단지 발굴을 통해 고품질 다수확 재배 기술을 확보, 전국에 확산시키고자 매년 우수 생산단지를 선발해 시상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로 선정된 녹두한우영농조합법인은 농촌진흥청장상과 함께 소정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녹두한우영농조합법인은 참여농가 재배기술 교육과 표준재배법 매뉴얼 확립, 영농일지 작성 등을 통해 꾸준히 생산성을 높여 왔다.

또 보급종 파종과 병해충방제 등 대부분을 기계화로 작업하고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 돌려짓기를 하는 등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특히 한우사육 과정에서 나오는 퇴비를 밀가루 등으로 토양에 환원해 지력을 높이고 정부지원 장비를 활용해 공동 농작업을 펼침으로써 우수 생산단지로 우뚝 섰다.

전정기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2년 연속 우수상을 받으며 정읍 논농의 우수성을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논콩 생산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벼 재배 면적을 줄이고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